

정은영, 한경우, 김은

## 미디어아트, 그들을 주목한다 ②

'백남준 80주년, 미디어아트를 말하다'에서는 백남준아트센터 학예연구사들의 추천으로 선정된 한국의 젊은 미디어 아티스트들을 만나본다. 백남준이라는 거목은 떠났지만, 이들이 있기에 여전히 우리의 미디어아트는 살아있고, 그 미래 역시 기대할 수 있다.

에디터 | 정은주(ejjung@jungle.co.kr)

제3회 미디어아트, 그들을 주목한다 ② (2012-09-28)

### 상대적이면서 다층적인 가능성, 김은

김은은 언어와 텍스트, 그리고 소리를 기반으로 설치, 영상, 퍼포먼스, 드로잉, 책 등 다양한 매체로 작업을 풀어내는 아티스트이다. 그녀는 사운드 아트 작업이 갖고 있는 시간의 변화와 그로 인해 느껴지는 생명력 때문에 라이브 퍼포먼스도 진행하고 있다. 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프랑스로 유학 후 '오브제 북(object-Livre)'과를 졸업했다. 이후 포스트 디플롬이라는 학제를 통해 사운드 프로젝트 실험 연구 과정을 거치면서 매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경력을 쌓아왔다. 작업 자체가 하나의 생명력을 가지며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 새로운 매체를 발견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르간의 새로운 의미부여와 가치를 찾는 일이다. 같은 문장이라고 해도 그것을 낭독하는 것과 읽는 것이 다르듯 그녀의 작업은 어떤 작업 방식으로, 어떤 공간이나 시간을 마주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읽힌다.



**Jungle :** 미디어 아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오브제 북(object-Livre)'과에서는 책을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개인 프로젝트에 따른 다양한 형식의 작업을 실험할 수 있었다. 그때 보르헤스의 단편소설 '지친 자의 유토피아'를 낭독하고 그것을 녹음, 편집하면서 소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후에 소리를 재생시키고 증폭시키는 음향 기기들을 사용하게 되었고, 청각 중심의 영상작업과 라이브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Jungle :** 대표적인 작업을 말해달라.



▶ <무향실을 위한 장치\_Device for Anechoic Room>, 2011, vinyl text on wall, microphone, microphone stand, amp, cd player, Kafka <Lettre au père> book print(74.1 x 44cm framed)

'무향실을 위한 장치'는 지난해 코너 갤러리에서 가진 사운드, 음향기기, 텍스트, 프린팅 이미지 작업으로 구성된 작업이다. 차가 달리고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의 (갤러리 이름 대로인) 코너에 위치한 갤러리이다. 흥미로운 점은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없는 반면, 24시간 관람할 수 있으며 윈도우를 통하여 작품들을 관람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장소의 특성을 감안해 구상한 이 작품은 장소를 무향실(anechoic room)이라 간주한 장소 특정적 설치 작업이다. 무향실은 음향을 정밀 측정, 실험하기 위한 소리 반사가 없는 방으로 대상 스스로 내는 소리만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격리된 특수 장치의 공간을 말한다.

전시장에는 벽에는 카프카의 '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를 출판 전 편집 상태인 페이지로 재현해 놓았고, 카프카 책 제목 페이지가 전복된 모습으로 프린트되어 액자로 놓았다. 또한 같은 책의 외국어(프랑스어)버전으로 낭독하는 소리가 앰프에서 출력되며, 다시 그 소리는 마이크에서 약한 강도로 하울링 되어 전시장 밖, 거리에서도 들렸다. 독립적이면서도 연계되어 있는 장치를 통해 전시 공간 안에서 '바라보는' 소리와 거리에서 조용히 떠도는 소리를 표현했다. 또는 거리의 소음의 강도에 따라 들을 수 없는 소리를 행인이자 관객에게 듣게 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 <과자의 문화적 혁명 #2>, 2010, Sound Poetry & Performance, approximately 10minutes, 상상마당 라이브 홀

'과자의 문화적 혁명 #2'는 (목)소리는 증발되어 잡을 수 없는 본래의 특성으로 인해 시각적인 표면과 양상을 평등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시행한 소리 시(Sound Poetry)작업이다. 컴퓨터의 내장하드가 돌아가는 진동, 사운드와 과자 패키지에 인쇄되어있는 소비를 유혹하는 크고 작은 활자들을 낭독을 통해 평등화시켰다.



▶ <듣기 위한 쓰기 연습-매미줄: 음 I, II> 2009, 잉크 젯 프린트, 뮤제오 실버 레그 종이\_300gm (Museo Silver Rag\_300gm), 각 84,1 X 118,8cm, clip 마이크, 마이크 스탠드, 앰프, 가변 설치.

문자는 읽히는 것을 기다리는, 더 나아가 읽히면서 들리기를 기다리는 오브제이다. '듣기 위한 쓰기 연습' 시리즈 작업 중 하나인 '매미줄:음 I, II'은 디지털 워드 프로그램 두 버전을 사용하여 문자를 약보화하는 과정부터 시작했다. 프로그램에 이미 입력된 코드 형식 (오자를 표시하는 붉은 점선 밑줄, 자간의 오류를 표시하는 초록색 점선 밑줄, 행을 표시하는 회색 화살표 등등)을 편곡자 &공동작곡자로 간주하고 작성한 악보, 의성문자 디지털코드로 이루어진 두 개의 텍스트와 음향장치로 구성했다. 듣는 이에 따라 다소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 매미소리 언어 문자 약보는 관객의 약보해석과 자율의도에 따라 노래 부르기 또는 낭독에 참여하는 공동 작업이며, 동시에 질료가 남지 않는 증거 없는 참여 작업이다.

**Jungle :** 故 백남준은 어떤 의미인가?

튀고 올라오는 시간이다.